



일마 진 종합편성채널 JTBC의 드라마 <내내의 가족>이 중영되었습니다. 시청률 1%를 넘기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을 만큼 고전을 면치 못하는 종편 채널을 가운데 이 드라마의 4%대 시청률은 지금까지 최고기록입니다. 순간 시청률은 5%를 넘겼다는 기사도 있었지요. 그런데 시청자들을 사이에선 원래 제목 대신에 “대치동 러브 에피어”라 불리며 입소문이 퍼진 이 드라마는 이른바 “블룬드라마”입니다. 가정을 가진 40대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결국 가정을 떠나 그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이번 호에는 블룬드라마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블룬’이라는 건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 규범, 도덕을 기스른다는 뜻으로서, 주로 가정을 벗어난 외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지요. 사실 멜로나 액션, 추리 등과 같이 블룬이라는 드라마 장르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블룬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를 보면 재빨리 “블룬드라마”라 구분 짓는 데 익숙합니다.

▶ 네 편의 드라마로 읽는 행복한 부부의 조건

이번 호에는 블룬드라마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블룬’이라는 건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 규범, 도덕을 기스른다는 뜻으로서, 주로 가정을 벗어난 외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지요. 우리는 블룬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를 보면 재빨리 “블룬드라마”라 구분 짓는 데 익숙합니다.

◎ 박진규(서울여대 인문영양학부 교수)

또, 블룬 드라마는 블룬을 미화하고 나아가 블룬을 조장한다는 것도 지나친 단정입니다. 거기에는 시청자를 너무 얕잡아 보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도 감동을 얻지만, 불행이나 비극을 통해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공감합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너무 극단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기 삶의 한 부분을 돌아보고 감정이입을 하기도 합니다. 블룬상황은 그런 감정을 끌어내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룬드라마를 스토리텔링 방식의 하나로 보면, 우리는 블룬드라마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블룬을 다루는 드라마는 언제나 가족의 결핍, 부부의 결핍을 배경으로 하고, 블룬은 그 결핍의 탈출구 노릇을 하는 새로운 사랑으로 묘사됩니다. 가정을 벗어난 사랑만큼이나 부부의, 가족의 결핍이 중요한 이야기 거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블룬드라마를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사랑을 가정 밖에서 찾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해로운 존재로 단순화시키거나, 또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곧 블룬을 저지르지 모를 위험천만한 일간이라 하고 볼 필요는 없어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블룬을 다룬 드라마를 통해서 완성된 가족의 모습을, 행복한 부부의 조건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블룬을 다루었으면 절대 박경이 라 폄하할 수 없는 드라마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된 설정이나 단순 관선적으로 포장된 공허한 이야기가 아닌, 사람의 본성과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중에서 1980년대부터 10년마다 하나씩 꼽으라면 다음 네 작품을 들겠습니다. 이 드라마들은 우리 사회가 블룬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또 부부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전혀 억지스럽지 않게 말해줍니다.

먼저, 198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MBC의 <모래성>(1988)을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드라마작가인 김수현의 작품이었지요. 김해자, 박근형, 김경 등 당시 최고 배우들의 열연으로 유명했습니다. 재무처럼 이 드라마는 가정이 '모래로 쌓은' 상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당시로써는 대단히 도발적인 화두를 던집니다. 40대 후



반의 변호사가 30대 노처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부인 현주가 겪는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 결국 현주는 이혼을 결심하고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남자의 “바람”은 한 때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며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아내가 참아내야 한다는 당시의 보편적인 인식과는 꽤 차이가 나는 결말이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으로 끝내지 않았다면 그 드라마는 존재할 필요도 없겠지요. 남자들이 말하는 ‘별일 아닌 일’을 그렇게 종결짓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96년에 방송된 MBC 미니시리즈 <애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동근과 황신혜가 주연을 맡았는데, 드라마만큼이나 두 사람의 패셔너블도 화제였습니다. 유동근의 인크색 와이셔츠와 황신혜의 머리핀이 큰 인기를 얻었지요. 거리에 나가면 삼입곡이었던 “O.U.”를 어디 서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해 국정감사에서 <애인>은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는 선정적 드라마라고 지적했던 국회의원들은 시청자들에게서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하며 엄청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사회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저마다 고독을 안고 살아가는 30대 남녀를 그렸습니다. 유치원생 딸을 둔 이벤트 회사 차장 여정은 역시 한 아이의 이빠인 조정희 사 사장 운오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정된 가정에 충실하지만, 너무도 익숙한 슬관이 되어버린 일상과 권태 속에서 새로운 사랑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배우자에게 돌아가 부부 사이에 잃어버렸던 사랑의 에너지를 되찾으려 노력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헤어지고 1년 후 우연히 다시 만난 이들이 “잘 지내시죠?”라며 서로

의 인부를 문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 이경영, 이요원, 김미숙 등이 출현한 포퓰서 감독의 KBS 주말극 <푸른안개>(2001)를 들 수 있습니다.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 나름 마니아 팬을 가지고 있었지요. 40대 중반으로 기업체 사장인 성재는 스포츠 실의 멘스스포츠 강사 신우의 당돌함과 순수함에 끌립니다. 그 과정에서 성재는 현재의 이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삶과 장인의 사명을 물려받은 뒤 장모의 무지와 처가식구들의 견제에 지쳐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별했던 아내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 빈 자리를 채우지 못했던 신에는 성재에게서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어릴 적 엄마의 외도를 목격한 성재가 여전히 아픈 그에게 성재는 큰 울타리처럼 다가옵니다.

결국, 이들의 만남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상처를 직면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곤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갈 힘을 재발명합니다. 성재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혼한 후 어릴 적 부부의 꿈이던 작은 시점을 차리고, 신에도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 외국으로 떠납니다. 제복관람이나 어스름한 새벽처럼 분명치 않은 이 두 사람의 심리와 감정을 세심하게 짚어낸 작품이었지요.

앞서 언급한 <아내의 자취>은 201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거론할 만합니다. 전업주부이면서 방송기자의 부인인 서래와 대치동 유명학원 원장의 남편이자 치과의사인 태오를 주인공으로 하지요. 결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오히려 신앙의 대상으로서 가진 서래와 태오의 사랑은 두 사람에게 혹독한 대가를 가져다줍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이들은 서로에게서 “대치동”으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의 온갖 욕망, 즉 교육열, 부, 권력, 위선,



박진연 서울여자대학교 연문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모스와 보리스

윌리엄 스타이글 저
우미경 역
시공주니어 출판

6 현문재(상권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이번 달에는 윌리엄 스타이글(1907-2008)의 그림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작품들은 오래전부터 번역본이 나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번역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외국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그는 1980년부터 뉴욕에(New Yorker)에 만화를 연재하다가 61세에 그림책을 창작하기 시작하여 20권이 넘는 그림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표작으로『실베스터와 요술 조약돌』,『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슈렉』,『멋진 뼈다귀』,『부릉부릉 스핑크』 등이 있으며 글이 많은 동화로는『아벨의 성』,『진짜 도둑』이 있습니다. 그는 칼 데쿱 메달, 뉴베리상, 안테르센 상 등 그림책과 아동문학 작가에게 주는 주요한 상은 거의 다 받았으며 소위 위대한 이 야기꾼(great storyteller)이라고 불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재미나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번 달에 소개할『Amos and Boris』(1971)는 다산기획 출판사가 1994년에 제목을 『생쥐와 고래』로 번역하여 출간하였으며, 그 후 1996년에 시공 주니어 출판사에서 『아모스와 보리스』로 원제 그대로 번역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그림책의 내용을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서 스토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글 텍스트는 다산기획의 번역본생쥐와 고래에서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아모스'라는 이름의 생쥐와 '보리스'라는 이름의 고래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제 5월호에 소개했던 '아름다운 책과 비교해볼 때 글 언어의 비중이 그림 언어보다 높은 작품이어서 그림을 보지 않고 글만 읽어낼 수 있는 정도 내용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그림을 함께 보아야 그 두 캐릭터를 더 잘 알아낼 수 있습니다(잠깐 실험을 해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림책 연구자들이 자주 하는 방법인데, 처음에는 누가 글만 읽어주고 이미지를 떠올리고, 다음에는 자신이 그림과 함께 글을 읽는 식으로요).

이 작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부분은 바다를 사랑한 아모스가 바다로 모험을 떠났다가 물에 빠져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데까지.
2. 두 번째 부분은 아모스가 보리스를 만나 친구가 되고 집으로 돌아와 헤어질 때까지.
3. 세 번째 부분은 보리스가 태풍에 밀려 버섯기로 떠밀려오다가 아모스의 기지로 실어나 두 친구가 다시 작별하는 결말까지입니다.